



고대의료원, 대한민국 경영혁신대상 수상 변화와 혁신으로 글로벌 메디컬 선도

고려대학교 의료원(의무부총장 손창성)이 '2010 대한민국 경영혁신대상'에서 종합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려대의료원은 서울경제신문과 한국경영평가원 주최로 4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0 대한민국 경영혁신대상' 시상식에서 보건 의료분야에서 뛰어난 경영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고려대 손창성 의무부총장, 이상학 의무기획처장이 참석했으며, 손창성 의무부총장이 시상대에 올라 이종승 서울경제신문 사장으로부터 선정패를 전달받았다. 손창성 의무부총장은 “고대의료원의 발전을 위한 변화와 경영혁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모든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 며, “국제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내실있는 경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의료세계화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세계적 수준의 의술과 규모로 높은 성과 보여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경영혁신대상은 창조적인 경영혁신 전략과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룬 기업 및 최고경영자(CEO)들의 성공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영실적과 수상경력 등을 기준으로 1차 선정한 320여개 기업 및 CEO 가운데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2010 대한민국 경영혁신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한 고려대의료원은 산하 3개병원 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을 중심으로 총 2,500여명상, 핵심의료진 400여명을 비롯해 총 5,500여 교직원이 세계로 향하는 국내 정상급 의료기관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교육, 진료, 연구 3대 부문에 대한 집중투자와 함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도 치료 비율을 높이는 한편, 검진센터 활성화 및 다양한 첨단 의술분야 강화는 물론 향후 의료개방에 대비해 해외환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세계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고대의료원은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경영자원을 최적화하고 효율성을 높여가는 등 공공의료부문 강화와 의료수익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도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심혈관센터, 암센터, 소화기센터, 간센터, 여성암센터, 수지점합센터, 수면장애센터 등 경쟁력 있는 세계톱클래스 특성화센터를 중심으로 원스톱 맞춤형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제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국가 지정 의약품,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가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국내 의료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나 가는데 일조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해외로 눈을 돌려 여러가지 대외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분야의 해외 우수대학 및 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의 교류 증진과 함께 해외의료관광객 유치를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선정하고 전담 T/F팀을 구성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외국인 전용 진료센터와 모든 상담 및 예약이 가능한 24시간 전용 핫라인을 개설해 왔으며, 맞춤형 검진프로그램

▶ 2면에 계속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내의료계를 선도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고려대 안암병원은 지난해 국제의료안전평가인 JCI 인증을 국내 선도적으로 획득한 것을 비롯해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인 의료기관으로 면모를 일신하고 있다. 2년전 그랜드오픈을 통해 전국구 병원으로 성장한 구로병원은 이제 아시아 의료허브로 성장해 가고 있다. 안산병원도 서해안 거점을 기반으로 제 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의료세분화 및 전문화를 선도해 온 고대의료원은 의료수준



[대한민국 경영혁신대상 상패]



거점대역이벤트 의화발전기금기부

10.03.10	종로구장학회	₩ 5,000,000
10.03.12	한국환경보건 안전과학연구소	₩ 4,200,000
10.03.19	정우신	₩ 3,600,000
10.04.01	황종익	₩ 5,000,000
10.04.05	최병두	₩ 1,000,000
10.04.05	임현호	₩ 10,000,000
10.04.10	백영일	₩ 2,900,000
10.04.19	나홍식	₩ 3,000,000

10.04.27	기술의정장교 동기회(1기)	₩ 1,000,000
10.04.27	유병태	₩ 2,000,000
10.05.04	박승하	₩ 20,000,000
10.05.04	금동호	₩ 5,000,000
10.05.04	안형진	₩ 5,000,000
10.05.07	조규란	₩ 5,000,000
합계		₩ 72,700,000

* 기간 : 2010년 3월 10일~5월 7일, 순서는 기부(약정) 일자 기준임



고려대 안암병원은 JCI 인증을 획득한 세계가 인정한 가장 안전한 병원입니다.

탁월한 성과를 바탕으로 각종 수상과 인증을 석권한 고려대의료원 · 고려대안암병원

MEDICAL PRIDE KUMC WORLD CLASS SAFETY



2010. 4 고대의료원
대한민국 경영혁신
대상 수상



2010. 3 고대 안암병원
소화기센터
글로벌의료마케팅
대상 수상



2009. 11 고대 안암병원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상 수상



2009. 8 고대 안암병원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JCI 인증 획득



2008. 9 고대 안암병원
심혈관센터
메디컬코리아
대상 수상

▶ 1면에 이어

램도 개발했다. 특히, 국내 최대여행사인 하나투어와 해외의 료관광객 유치 협력을 체결하고 다양한 검진상품 및 통역문제 까지 해결해 해외교민은 물론 외국인 등 해외의료관광객 유치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사람을 위한 경영철학 높은 성과로 이어져

과감한 변화와 혁신의 추진동력은 고대의료원의 경영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 인재등용과 사람을 위한 섬김경영이 바로 그것. 글로벌 우수인재 영입 및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문호

를 개방하고 교육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의료진들의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인센티브제와 연구비 매칭펀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에게 비전을 공유하고 확실한 지향점을 제시하고 애사심과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병원을 찾는 환자들과 고객들이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서비스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 문호개방, 적극적 고용개선과 함께, 각종 복리후생에 대한 투자, 투명한 인사정책, 인사시스템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는 고대의료원은 최고 경영진들도 직접 수시로 현장을 돌며 직원들의 고충과 아이디어를 청취해 바

로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등 전인적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려대의료원은 이러한 변화와 혁신활동을 바탕으로 첨단 미래의학을 실현하는 국제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설정하고 실현해나가고 있다. 현재 안암병원 첨단의학센터를 비롯해 의학관 신축, 구로, 안산병원 증축을 진행 및 추진하고 있는 고대의료원은 향후 의과대학과 보건과학대학을 중심으로 학교, 병원, 연구소, 기업, 정부기관 등 산학연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세계적인 첨단 바이오메디컬 콤플렉스로 발돋움시켜 나갈 계획이다.

[SPECIAL REPORT 1]

MEDICAL KOREA! 해외환자유치 팔걸어

고대 안암병원, 글로벌헬스케어 & 의료관광 컨퍼런스 코리아 2010 참가

고려대 안암병원(원장 김창덕)이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글로벌헬스케어 & 의료관광 컨퍼런스 코리아 2010'에 참가했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미국의료관광협회(MTA)가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약 34개국의 의료기관, 유치업자, 보험 관계자, 정부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가해, 글로벌헬스케어의 미래와 비전, 의료시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국제진료센터 이희순 센터장, 박건우 부센터장을 비롯한 의료진이 참가해 부스를 설치하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본원 홍보와 함께 물론 싱가포르 파크웨이그룹, 텍사스 메디칼센터, 미국한인의사협회, 유로메디칼 투어, 유나이티드헬스보험사, 중국대련병원, 몽골국립병원, 카자흐스탄공화국병원, 상트 의료기기, 반야트리스파 등 200여명의 해외바이어와 각국의 미디어관계자들과 비즈니스미팅을 펼쳤다. 김창덕 병원장을 비롯한 권병창 경영관리실장, 이은숙 간호부장도 15일 직접 행사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컨퍼런스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홍보전도 함께 펼쳤다.

최근 한국국제의료협회 부회장에 취임한 김창덕 원장은 美 의료관광협회장을 비롯한 에이전시, 일본에서 처음으로 JCI를 획득한 캐나다 병원 관계자, 정부관계자들과 일일이 면담하면서 대한민국과 본원 의료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환자유치마케팅 전략, 헬스케어산업의 글로벌화, 병원국제인증프로그램 현황과 추세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졌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IDI), 한국국제의료협회(KIMA), 재미한인의사협회(KAMA) 3자간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MOU,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과 카자흐스탄 대통령의료센터간 보건의료분야 협력에 관한 MOU 체결도 이루어졌다.



한국인공장기센터 高大 선정 '최우수연구소'

세계최고의 인공장기 연구기관으로 세계가 주목



고려대학교(총장 이기수)는 4월 27일(화) 오전 10시30분 본관 제 1회의실에서 '2008학년도 부설연구기관 정기평가 보고 및 시상' 을 개최해 한국인공장기센터를 '최우수연구소' 에 선정했다. 생명장기를 치료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의학적 접근법 등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인공장기센터는 2004년 10월 세계 최소형 인공심장을 개발하는 등 세계 최정상급의 인공심장 및 인공장기 연구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공장기센터는 보건복지부 휴먼텍 21사업의 지원을 받아 2002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인공장기 연구개발 기관으로, 기계식 인공심장 개발 및 산업화, 줄기세포 및 지지체를 이용한 조직공학과 나노바이올로지 등 NT, BT, IT 등이 결합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명의 장기인 심장과 신장, 간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장기의 종합적 개발이 이뤄지도록 국책과제 및 기업체와의 산학연 협동연구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된 부설연구기관 평가는 고려대학교 내 115개 연구소를 대상으로 조직 및 지원체계, 연구 활동, 연구소 운영 및 발전계획 등 계열별로 24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이루어졌으며, 최우수 연구소에는 상장과 포상금 1천만원이, 우수 및 도약연구소에는 상장과 포상금 5백만원이 각각 수여되는 등 총 16개 연구소에 1억 500만원이 상금으로 지급됐다. 한편, 한국인공장기센터는 인공장기 최고 권위지 ASAIO 저널에 논문이 다수 게재되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의공학연구기관과 협력연구를 실시하는 등 독보적인 행보를 걸어오고 있다. 또한, 지난 2008년에도 최우수연구소에 선정된 바 있어 그 역량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한국인공장기센터 소장, 선경교수를 통해 인공장기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봤다.

1. 인공장기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인공장기는 넓은 의미에서 인체 내 장기의 일부분 기능을 향상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인공삽입물로 정의할 수 있다. 인공장기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는데, 인체 내의 많은 장기들 중 극히 일부라도 기능이 떨어지거나 완전히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작게는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크게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넓은 의미에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도 인공장기에 포함할 수 있는데, 그 유무에 따라 일상생활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또 다른 인공장기에는 인공심장, 인공눈, 인공혀, 인공간, 인공췌장, 인공신장, 인공다리 등이 있을 수 있다.

2. 인공장기 개발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현재 기계식 인공장기와 바이오인공장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안경이나 인공관절과 같이 인공의 생체재료, 기기로 구성되어 기능을 보조 또는 대체하고, 후자는 동물이나 세포의 배양으로 장기를 형성하여 기능을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공심장의 경우에는 요구되는 부분이 많다. 혈액 펌핑 기능만 기준으로 할 때는 혈액펌프기능, 혈액손상도와 관련된 혈액적합성, 생체적합성, 내구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체외에 설치하는 심장보조용 혈액펌프라면 크기에 제한 조건이 덜하겠지만, 체내에 이식되는 혈액펌프라면 부품의 소형화에 따른 재료의 강도, 내구성, 혈액적합성, 배터리의 크기, 에너지의 유/무선전송, 데이터 무선전송 등의 공학적인 기능들이 다각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5. 인공장기 개발기술의 선진국은 어디이며, 우리나라의 인공장기 개발 현황과 수준은.

인공장기 개발기술의 선진국은 미국 일본, 유럽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들은 두터운 이공계 과학자를 포함하여 의료진과의 협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공장기개발은 외국에 비해 10여년 가량 뒤늦게 출발했다. 또한 연구자들의 수가 적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연구비 지원도 아직은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공식 연구소로 출범한 한국인공장기센터(소장-선경)에서는 생명장기인 심장, 콩팥, 간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장기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성과가 기대된다.


4. 앞으로 개발이 가능하거나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인공장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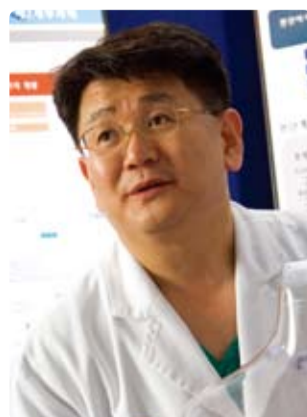
현재 연구되고 있는 인공장기는 인공심장과 인공간, 인공폐, 인공신장, 인공외이, 인공망막 등이 있다. 인공심장도 작용기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혈액 펌프로써 사람의 심장기능을 대체하는 것이지만 기술적인 방식은 여러 가지로 접근해 나가고 있다. 먼저 혈액을 자연심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공급하는 박동형 펌프와, 비박동성 펌프로 구분할 수 있다. 인공간은 동물의 간세포를 키운 담체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고, 속이 비어있는 실과 같은 중공사막을 이용한 인공폐, 이동형 인공신장, 눈으로 들어오는 영상을 이미지 센서로 처리하여 뇌의 시각중추에 보내주는 인공시각 등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3. 현재 개발돼 있는 인공장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현재 개발되어 있는 인공장기는 간단한 인공삽입물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수정체, 인공각막, 인공관절등이 현재 개발되어 널리 쓰이고 있다.

6. 인공장기 개발의 전망

인공장기는 생명과학과 공학 및 의학을 포함한 다양한 생명과학기술이 융합되는 종합예술이다. 망가진 생명장기를 대체하고 재생시킴으로써 건강을 회복하고 생명을 연장하려는 인류의 꿈은 인공장기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선 경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 교수
고려대 Brain Korea 21
의공학 책임교수
한국인공장기센터 소장

병원소식

KOREA 의료에 관심... 미-러 고대병원 방문 러쉬



해외환자 유치에 발벗고 나선 고려대 안암병원(원장 김창덕)에 주한 미군, 러시아, 카자흐스탄 의료진 및 병원 관계자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4월 16일 오전 고대 안암병원을 찾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언론인 10명은 의료관광 팸투어를 실시했다.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철도병원

의사인 다잘로프 비탈리 박사를 비롯한 팸투어단은 국제진료센터와 토모센터, 심혈관센터, 로봇수술센터 등을 둘러보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 이날 오후에도 美 8군 의무사령부 스미스 사령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MOU 체결 1주년을 맞아 다시 본원을 찾아 김창덕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병원을 곳곳을 돌며, 다시한번 긴밀한 교류협력을 다짐했다. 이들은 병원투어를 마친 후 '세계수준의 의료술기와 인프라를 갖춘 국제병원'이라며 고대 안암병원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

고대의대, '감사와 후원의 밤' 및 '학부모 정기총회' 개최

고려대 의과대학(학장 서성욱)은 4월 12일 오후 3시 안암병원 8층 대회의실에서 '감사와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자리를 옮겨 의대 4강의실에서 '학부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서성욱 의과대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장, 엄창섭 총무부학장, 김병수 교육부학장, 윤영욱 연구교류부학장을 비롯한 각 학년별 지도교수 및 의대 학부모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개식선언 ▲인사말(학장) ▲보직자소개 ▲감사패 수여 ▲인사말(학부모회장) ▲대학현황 소개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대형버스 4대에 나누어 탑승한 학부모 회원들은 고대 홍보도우미의 안내를 받으며 녹지캠퍼스, 인문·자연계캠퍼스 등을 투어했다. 학부모



회는 고려대학교 교정을 돌아본 후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며, 안암병원 햇살나눔정원으로 이동해 저녁만찬을 가져 이날 행사를 마감했다. 서성욱 의과대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려대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은 글로벌 탑 수준의 의료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업적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추어 학생들의 학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심혈관센터 박성미 교수, 학회서 최우수 연구과제 선정



심혈관센터 박성미 교수가 최근 부산에서 개최된 한국 심초음파 학회에서 '치료받지 않은 젊은 연령의 고혈압 환자에서 2D-STI(2-Dimensional Speckle Tracking Imaging)를 이용한 심장 기능의 변화와 혈압과 심박수의 일중 변화의 관계 분석'이라는 주제의 연구과제가 최우수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연구비를 수여받게 됐다. 특히 젊은 연령에서 높은 혈압을 가지고 있음에도 초기에는 임상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심각한 증상이나 징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심각한 심혈관계 합병증

으로 발전한 다음에야 병원을 찾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연구비 수여는 한국 심초음파 학회에서 제출된 많은 연구 과제들 중 가장 우수한 연구과제들에 수여하는 것으로 연구비는 총 1,000만원이 지원된다. 📌

2010 안암병원 간호부 친절조회 개최



간호부는 4월 26일 각 병동의 간호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가 먼저 인사하기"라는 주제로 친절조회를 개최했다. 이번 친절조회에서는 인사를 통해 안 좋은 인상까지도 극복 가능한 인사의 중요성에서부터 『이런 경우! 이렇게!』 - 가벼운 복례에서 보통례, 정중

안암병원 서비스전도사 원주기독병원에 상륙하다



안암병원 간호부 53병동 오명옥 수간호사는 4월 27일 연세대 원주기독병원 의과대학 루가홀에서 병원 전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마인드 혁신의 필요성과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조건 등에 대해 강의했다. 평소 원내 CS 활동 및 CS 강의를 통해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 및 현장에서

의 실제 활용을 위해 노력한 오명옥 수간호사는 이를 계기로 원주기독병원 적정진료관리실의 의뢰를 받아 이번 강의를 맡게 되었다. 약 320 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병원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가 있다면 그 병원은 고객들이 제 1순위로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것과 이를 위해 직원 개개인별로 서비스 마인드 표준화 교육을 통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강의를 실례와 함께 생생하게 이루어져 큰 호응을 받았다. 📌

2010년 임상간호연구논문 Proposal 발표회 실시

안암병원 간호부(부장 이은숙)는 4월 19일 (월) 중회의실에서 '2010년 임상간호연구논문 Proposal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는 앞으로 병동 및 특수부서에서 진행예정인 임상간호연구에 대한 세부계획 발표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연구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임상간호연구논문을 준비하는 동안 서로 격려 하는 자리가 되었다. 부서별 논문의 주제는 은오법이 Oxaliplatin을 투여받는 환자에게 발생하는 말초신경병증의 불편감에 미치는 효과(55병동), 미숙아 어머니의 녹음된 목소리를 통한 청각자극이 미숙아의 성장과 애착에 미치는 효과(NICU)등이며, 총 14부서에서 2010년 임상간호연구를 진행해 올 12월 연구논문 완성을 목표로 하여 임



상간호연구에 매진할 예정이다. 발표회에 참가한 한 간호사는 "계획서 발표를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은숙 간호부장은 "바쁜 업무 중에도 임상간호의 발전 및 환자간호를 위해 연구논문을 준비하는 모습이 매우 뿌듯하다. 끝까지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며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

이은경 의료정보팀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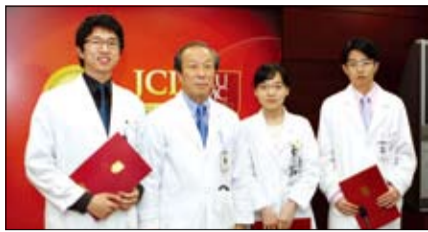


이은경(사진 왼쪽) 의료정보팀장이 5월 7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51차 정기총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이은경 의료정보팀장은 퇴원환자 조사, 퇴원손상 심층조사, 국가 암등록 사업 등에 참여해 양질의 국가 보건통계 생성이 이루어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대한의무기록협회 EMR 위원으로 재임하면서 관련 교육과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의료기관의 EMR 표준화를 선도하는 등 국민보건향상 및 의무기록사들의 자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활발한 원외활동 뿐만 아니라 원내에서도 이은경 의료정보팀장은 남다른 리더십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팀내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고 활동역량을 배가시키기 위해 모든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각종 회의를 주재토록 해 팀원 스스로가 문제점을 찾아내고 취합된 문제점들은 해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

병원소식

의무기록 정리 최우수부서에 소화기내과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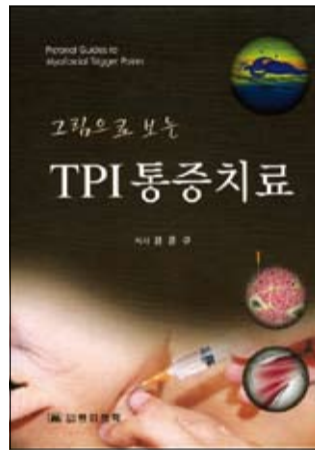


안암병원은 4월 28일 본부회의실에서 '2009년 하반기 의무기록 정리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이번 포상은 2009년 하반기동안 OCS 경과기록 입력률, 월평균 차트 완성률, 기록충실도, 평균재원일수, 전공의 담당 환자수, 교수서명완성률 등의

의무기록을 종합평가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소화기내과가 의무기록 정리 최우수부서에,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가 우수부서에 각각 선정됐으며, 선정부서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수여됐다. 한편, 지난해 JCI 인증심사시 평가단으로부터 의무기록 정리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은 바 있는 의료정보팀은 의무기록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매월 1회 의무기록 정리 우수전공의를, 매년 반기별로 의무기록 정리 우수부서를 선정, 포상하고 있다. 📖

국내 베스트셀러 의학교과서, 대만 수출길 올라

재활의학과 강윤규 교수가 발간한 근막통 의학교과서 '그림으로 보는 TPI 통증치료(ISBN:978-89-89892-83-0, 한미의학)'가 최근 대만판 수출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연내 대만어로 번역되어 현지에서 출판되며, 초판 2,000부를 인쇄할 예정으로, 선인세로 8,200달러를 지급받게 된다. 강윤규 교수가 2006년 11월 발간한 '그림으로 보는 TPI 통증치료'는 각 근육별로 통증유발점, 전이통이 나타나는 부위, 증상, 생활 속 원인, 주사치료부위, 스트레칭 방법 등 근골격계 질환 중 가장 흔한 근막통에 대해 그림과 함께 상세하게 서술해 근막통을 처음 접하는 의사와 치료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단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의학교과서로는 드물게 발간이후 국내에서 3,000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이기도 하다. 저자인 강윤규 교수는 "대만 수출은 이제 시작이다"면서, "국제 학회에서 소개했을 때 각국의 의료진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향후 영어로도 출판해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해외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신생아실의 이유있는 변신



엄마의 뱃속이 아닌 인큐베이터로 옮겨져 하루하루 생존의 고비를 힘겹게 넘고 있는 미숙아를 면회하기 위해 찾은 한 보호자는 걱정보다는 희망이 앞섰다. 신생아실 간호사들이 보호자탈의실에 손수 꾸민 기적의 벽이 보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생아는 물론 신생아 중환자실에 옮겨진 아이들을 보호자들이 면회하기 위해서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전용가운을 착용해야만 한다. 신생아실 간호사들은 이 보호자 탈의실 벽면에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현재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비롯해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모유 수유하는 산모들의 행복한 모습들을 엮어 기적의 벽으로 재탄생시켰다. 이 벽은 세상에 첫발을 내딛은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 꿈과 희망을 담아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위대한 기적을 소리없이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 📖

2010년도 임상간호 실무 지침서 발간

간호부는 2010년도 임상간호 실무 지침서를 발간하고 수간호사 중심의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신입간호사 Preceptor Program 및 간호수기술 평가항목을 개발했다. 임상간호 실무 지침서는 간호사들이 간호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안내서로 최신 임상간호 실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 그 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판에 이르렀다. 안암병원의 현직 수간호사들이 해당 전문분야별로 내용을 검토하여 그동안 변화된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일련의 작업을 거쳐 완성했다. 임상간호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수간호사들의 오랜 교육과 실무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지침



서와 함께, 수간호사 중심의 실제적인 임상실무 현장 체험학습을 골자로 한 신입간호사 Preceptor Program을 거쳐 실무중심 교육을 위한 간호수기술 평가항목 체크를 통한 개인평가까지 발맞추어 알파라이징(Alpharising) 효과를 이끌어내며 안암병원 간호실무의 길잡이로서 유용하게 활용되어질 예정이다. 📖

"어르신과 더불어" 노인정 봉사활동 실시



성북구 간호사회(회장 조운수, 안암병원 간호관리팀장)는 4월 20일 안암동의 한 노인정을 방문하여 제2차 "어르신과 더불어"라는 주제로 봉사활동을 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혈압 및 혈당 측정과 함께 어르신들

이 평소 건강문제와 관련해 궁금해 하는 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건강 상담 후 다과회 및 신나는 음악과 함께 할 수 있는 수건체조와 박수게임 등의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하여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총 16명의 어르신들이 참가하였으며 그 중 한 어르신은 "수건체조로 몸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집에서 종종 해 봐야겠다"며 "실내에서 손쉽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

고대의대, 숭고한 희생정신 기리는 감은제 실시



의과대학은 4월 15일(목) 오후4시30분 의과대학 감은탑 앞에서 '감은제(感恩祭)'를 개최했다. 의과대학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감은제는 시신기증인 호명과 헌화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유가족들의 헌화가 끝난 후

의학과 학생들이 단체 헌화를 통해 고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성욱 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학교육을 위해 시신을 기증한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받들어, 의학교육과 의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의학발전을 위해 헌체해주신 고인들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매년 의학교육과 우리나라 의학발전을 위하여 헌체하신 고인들의 뜻을 추모하는 감은제를 실시하고 있다. 📖

보건과학대학, 2억2천만원 상당의 '치과캐드캠 프로그램' 기증받아



구현할 수 있어, 치과보철물이나 임플란트 및 교정장치물 등의 치과 장치물 등을 전자동으로 매

고려대 보건과학대학(학장 임국환)이 4월 14일 오전 10시 고려대학교(총장 이기수) 총장실에서 한국델캠(대표: 정찬용)으로부터 2억 2천만원 상당의 'DentCAD/MILL' (치과 캐드캠 프로그램)을 기증받았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환자의 구강을 3D 시뮬레이션으로 정확하게

우 우수하게 제작할 수 있다. 국내대학 최초로 치과캐드캠 프로그램을 확보하게 된 고대 보건과학대학은 '치과캐드캠' 학과목을 개설하게 되었으며, 교육 및 연구를 비롯한 실무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대 보건과학대 치기공학과 김용철(대한치과캐드캠기공학회) 교수는 "치과캐드캠 프로그램의 도입은 임상적 측면에서 치기공분야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통째로 바꾸는 일대 혁신과 같다"며 "치과 장치물은 그 특성상 사람의 손을 활용하는 수작업 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치과캐드캠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제품의 고급화는 물론 환자 개인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즉시 실현할 수 있게된다"고 강조했다. 📖

“高大 로봇수술, 20년 최강 재확인! 이제는 글로벌 No.1이 목표”

로봇 암수술로 세계 맹주로 떠오르고 있는 고려대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 로봇수술의 국내 상륙을 이끈 로봇수술센터가 단기간에 다양한 임상분야에 적용하며 독창적인 수술 테크닉으로 국제 의료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고대병원 세계적인 명의들이 펼치는 로봇을 이용한 마법같은 의술에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 및 학회에서의 러브콜도 쇄도하고 있다. 고대 로봇수술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강으로 이끈 쌍둥이마차가 바로 비뇨기와 천준 교수와 대장항문외과 김선한 교수. 2007년 7월 개소 이래 지금까지 로봇수술센터장을 맡으며 함께 센터발전을 일궈온 김선한 교수로부터 최근 그 바통을 이어받은 천준 신임 로봇수술센터장에게 로봇수술센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천준 교수와의 일문일답.

Q. 센터 개소한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로봇수술의 장점과 그간의 성과는?

A. 로봇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 수술에 비해 10~15배 확대한 3차원 화면을 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정상 신경과 혈관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조직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 수술시 상처가 작아 출혈과 통증을 줄이고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는다. 서방 선진국에서 주로 전립선암에 사용하던 로봇수술을 본원 센터에서는 대장/직장암을 비롯해 위암, 갑상선암, 폐암 등 다양한 질환에 적용하고 있다. 규모로 따지면 아직 작긴 하지만 로봇수술의 술기와 역량으로만 따지면 세계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는다. 예전에는 한국 의사들이 로봇수술을 배우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찾아 다녔지만 이제는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이 자문을 구하거나 직접 우리 병원을 찾고 있다.

Q. 최근 경쟁적으로 로봇수술장비 국내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A. 이전 복강경이 그랬듯이 로봇수술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진화에 진화를 거쳐 향후 미래 의학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의료장비로 자리잡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 의료기관간에 학문 및 정보교류를 비롯해 국내 로봇수술장비 개발 참여, 교육 확대 등 상호간의 협조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대한민국이 로봇수술의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세계적인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 있는 센터만의 강점이 있다면?

A. 바로 맨파워다. 전립선, 방광암 등 비뇨기암은 무혈수술로 세계에서도 정평이 나 있다. 제가 세계로봇수술센터의 명예교수로 임용된 것을 비롯해 최근 3년간 강석호, 고영희 교수와 함께 세계 최대 로봇수술학회와 공동으로 수술 및 컨퍼런스를 4대륙으로 실시간으로 생중계해 이 분야에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한, 김선한 교수는 싱가포르 의대에 초빙교수로 임용된

것을 비롯해 美 메이요와 클리블랜드클리닉을 비롯한 국제 학회 등 세계 최고의 의료진에게 자신의 술기를 원격 생중계로 전수하기도 했다. 또한 로봇 직장암 수술법 매뉴얼로 제작되어 전 세계 의료진에게 배포되고 있다. 위암의 박성수 교수, 갑상선암의 김훈업 교수, 이비인후과 종양의 정광운 교수도 새로운 로봇수술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또 간담도췌장외과 서성욱 교수, 흉부외과 김광택, 신경, 이성호 교수, 상부위장관외과 김종석 교수, 대장항문외과 김진 교수, 산부인과 김탁, 송재운 교수도 센터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다. 뿐만아니라 수술실 이형숙 수간호사를 비롯한 민현진 로봇수술센터 책임간호사, 유운영, 김민진, 임지영, 유슬기 간호사로 구성된 로봇수술센터 전문간호사팀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수술간호업무 능력과 로봇의료기술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등 세계 최강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Q. 지난해 아시아 첫 로봇수술 3D 시뮬레이션 교육을 시작하셨는데.

A. 어떤 의학교육이던 전공의를 비롯한 전문의들이 아주 쉽게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시뮬레이션 교육 장비를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추가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이 본원 의료진으로 국한되어 있어 제한점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단계별로 로봇수술 교육 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특히, 의학발전을 위해 국내외 전공의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무료 교육이 가능한 로봇수술 트레이닝 센터를 연내 개소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개소와 함께 세계 의료진이 찾는 로봇수술 교육의 메카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Q. 로봇수술센터의 향후 발전 방안은?

A. 그동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가 이처럼 세계적인 센터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총장님과 의무부총장님, 그리고 병원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재 전략사업으로 안암역과 연계되는 국제적인 첨단의학센터가 연내 첫 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로봇수술센터가 그 중심축에 서서 안암병원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의 세계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센터 의료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세계 제1의 로봇수술 교육 기관이자 수술센터인 세계로봇수술센터를 비롯한 해외 우수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고려대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가 세계 최고 수준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비뇨기과 천 준 교수

문화 소개

삼각산 순례길 걸으며 혈관 건강 중요성 알려 깨끗한 혈관 만들기 캠페인 성료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손창성)이 쿠키미디어, 강북문화원과 함께 4월 24일 진행된 '깨끗한 혈관 만들기 캠페인 - 삼각산 순례길 걷기대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평소 걷기를 통해 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혈관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이번 행사는 지난해말 북악산 서울성곽걷기대회에 이어 2번째로 열린 것으로, 일반인과 교직원 170여명이 참석해 4.19 혁명 50주년을 맞아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출발해 솔밭공원에 이르는 약 3.4km의 삼각산 순례길을 걸었다. 참석자들은 순례길을 걸으며 고혈압, 동맥경화, 허혈성심장질환, 부정맥 등 심장질환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뿐만아

니라 민족의 영산으로 알려진 삼각산 자락에 자리 잡은 순국선열들의 묘지를 함께 탐방,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감사와 애도의 마음을 전해 더욱 의미가 깊었다. 특히, 순례길 완주후에는 혈당, 혈압 등 무료검진 및 상담을 실시해 참석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타민제와 본원 심혈관센터 임도선 교수가 출간한 '가슴이 아파요', '심장에게 말걸기' 책자를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조태형 대외협력실장은 "식생활의 서구화와 운동부족 등으로 인해 심혈관질환이 급증하고 있고, 발병 연령대도 계속 낮아지고 있어 매우 염려스럽다"면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예방 및 관리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많은 순국선열과 문화예술인들이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있는 삼각산 순례길은 예로부터 뛰어난 풍광과 성스러운 기운을 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간호사들이여~ 캡(Cap)을 키워라!”

23년간 간호사들과 동거동락하며 위풍당당 전문간호시대 열어
만언니 역할을 자처하며 부드러운 감성리더십 몸소 실천



조윤수 간호관리팀장

“학창시절 학생회관이 찌렁찌렁하게 울릴 정도로 목소리가 좀 컸어요. 남들 뒤에 있기 보다는 앞장 서는 성격 때문인지 친구, 후배들이 많이 따랐구요. 노래도 곧 잘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여럿 쓰러졌죠. 얼마전에는 친구에게 애창 곡인 ‘애인 있어요’ 를 불러줬더니 너무 좋아서 제 친구가 울더라니까요.(웃음)”

다소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터뷰에 임한 조윤수 간호관리팀장(사진)은 막상 대화가 시작되자 자신의 여담을 재치있는 입담으로 풀어내며 어색했던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버렸다. 조 팀장은 인터뷰 내내 부드럽지만 강한 어조로 자신의 소신을 밝혀 나갔다. 행복한 가정의 주부이자 간

호사로서 자신의 꿈을 펼쳐가는 조윤수 팀장은 타고난 리더중에 리더였다.


그도 그럴것이 현재 조 팀장이 교육과 인사 등 관리하고 있는 간호부 소속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만도 850여명에 이른다. 또, 지난 2007년부터 수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성북구간호사회 회원수는 본원을 주축으로 관내 5개 중소병원, 성북구 보건소, 보건교사회, 고대간호대, 성신여대 간호학과 및 개인 등 1,000여명에 달한다.

원내 간호사와 성북구 간호사회원들의 만언니를 자처하며 직접 간호사들과 회원들을 찾아 고충을 청취하고 개선점을 찾는 등 솔선수범하는 그녀의 모습에 후배 간호사들도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한 간호사는 “새내기 시절 병원생활이 모두 낯설고 어렵기만 했는데 그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셨다” 면서, “힘들 때 따로 부르셔서 챙겨주시고 다독겨주셨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고 말했다.

이 이야기를 전하자 조 팀장은 씩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정말 약점 많고 빈틈이 많은데 그렇게 봐준다니 고마울 따름이다” 면서, “엄할 때는 엄하겠지만 간호사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스스로 잘못을 찾아 고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23년전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병원에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희생, 봉사, 사랑의 나이팅게일 정신을 잊은 적이 없다.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보고 느끼고 배웠던 것들을 우리 후배들에게 널리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제일 큰 바람” 이라고 말하고, “간호사의 캡(Cap:간호사의 상징)을 키우기 위해 지식습득과 인성함양 등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간호에도 전문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공부에도 열심이었던 그녀는 원내에서도 알려진 학구파로 2001년에는 간호학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간호관리팀장을 역임하면서 간호부장을 보좌하고 간호사들의 교육 및 행정 등 전반적인 업무를 기획하고 관리하고 있는 조 팀장은 일 욕심도 많기로도 소문이 자자하다. 입사한지 1년 미만의 신규간호사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애로 및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신바람나는 부서문화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기도 했다. 또한, 간호사들의 실무능력을 증진시키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연구활동 지원으로 간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주요 간호대학을 찾아 취업설명회를 갖고 있으며, 간호업무 및 행정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에도 매진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성북구 간호사회장을 역임하면서 뷰티교실 등 정기적인 문화교실, 기관장 간담회, 총회 개최를 비롯해 지역내 어르신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검진 및 상담, 건강캠페인을 펼치는 등 수많은 사업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조윤수 간호관리팀장은 “앞에서 뛰어난 리더십으로 간호부를 이끌어 주시는 이은숙 간호부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힘들어도 함께하며 간호사들의 권익신장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묵묵히 애써주고 계시는 수간호사님들과 간호부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고 덧붙였다. 

익숙해 보이는 불청객 A형 간염

의학정보



신종플루와 계절독감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화두가 된 전염성 질병은 A형 간염이다. A형 간염은 1990년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성인이 되기 이전에 A형간염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가져 급성 A형간염이 발생하는 예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눈부신 사회경제적 성장과 함께 위생상태가 개선되면서 어렸을 때 A형간염바이러스와 접촉할 기회가 줄어들어 항체 없이 성인이 되는 빈도가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최근 급성 A형간염은 급성간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2008년 봄부터 급성 A형간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A형간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A형간염은 B형간염이나 C형간염과는 달리 만성화되지 않고 급성간염으로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생 시기를 보았을 때 대개 봄이 되면서 발생빈도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가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겨울에도 상당수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

▶ A형간염바이러스의 전염경로

A형간염바이러스 감염은 주로 물이나 음식 등의 섭취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A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분변을 통해 바이러스가 체외로 배출되게 되며 이에 오염된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게 되면 감염된다. 따라서 가족 간의 전염 이외에도 공동생활을 많이 하는 학교나 직장도 전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 A형 간염의 증상

성인이 A형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한달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감염자의 80% 정도에서 전신증상이 급격히 발생하는데, 초기에는 주로 발열, 오한, 근육통, 피로감,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 또는 우측 상복부의 통증 등 전신증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자신이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한 감기로 여겨 감기약 등을 복용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초기의 전신증상은 대개 일주일

이내로 회복되지만 점차 황달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선 소변색이 마치 혈소가 있는 것처럼 짙어지고 점차 눈과 피부색이 노랗게 변한다. 황달이 지속되는 기간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개 1-2주 내로 회복되기 시작하여 1~3개월 내에 정상화되지만 드물게 6~12개월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 A형 간염의 위험성

대부분의 환자는 별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되나 일부에서는 지속성 간염, 담즙정체성 간염, 재발성 간염 등 비전형적인 과정이 나타날 수 있으며, A형간염 환자의 0.3~0.5% 정도에서는 전격성 간기능 부전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대부분 사망한다. A형간염 환자의 분포를 보면 최근 A형간염의 발생빈도만 증가한 것이 아니고 A형간염에 감염되는 환자의 나이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A형 간염의 치료법

현재까지 다른 모든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경우와 같이 급성 A형간염에서도 급성기에 바이러스를 없애는 치료를 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발병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발병증세를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이 사용된다. 간염 초기의 전신증상이 너무 심해 전혀 먹지 못하고 구토를 하는 경우 탈수 및 체내 전해질 불균형이 나타나 다른 장기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기도 하다. 또한 빠른 치유를 위해 고단백 식이요법과 간에 휴식을 주는 형태의 치료가 들어간다. 또한 채소와 과일의 섭취를 통해 풍부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여 소화 대사를 돕는다. 음주와 흡연은 간 건강에 치명적이므로 금하도록 한다.

▶ A형 간염의 예방법 및 관련정책

위생의 개선이 가져온 현재 추세에 A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위생’이다. A형 간염의 주된 감염경로가 사람간

의 직접접촉과 오염된 음식물에 의한 간접접촉인 만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A형 간염에 대한 감염위험을 줄일 수 있다. 얼마전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많이 신경을 쓰면서 A형간염의 발생률이 감소하였다가 신종플루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면서 A형간염의 발생률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던 점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A형간염의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손씻기를 철저히 하고 충분히 익힌 음식과 끓인 물을 마시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A형간염의 경우 효과적인 예방접종이 개발되어 있어 이를 통해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하다. A형간염 예방접종은 6-1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시 거의 대부분에서 예방 항체를 획득하게 된다. 

글 | 소화기내과 서연석 교수
외래 | 02) 920-6552

